

이흥재의 세상만사



윤장현 광주 시장은 잘 알려진 대로 늘 작은 차를 탄다. 그렇다고 다른 기관장들처럼 큰 차를 타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큰 차를 탈 때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뒤로 젖혀집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자면 ‘자때바때’ 해지는 거지요. 하지만 작은 차를 타니 아무래도 낮은 데서 모든 걸 바라보게 돼요.”

윤 시장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 늘 약자나 어려운 자를 살피고자 한다. 그가 2년 전 시장이 되어 처음 시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청소년 아줌마들이 화장실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는 것이다. ‘다 밥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럴 수가 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직원들이 그런 애처로운 광경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치더라는 것이다.

이후 시청 내 8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 것도 그런 일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삶의 자존을 찾은 이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볼 때 그는 시장으로서의 보람

을 느낀다.

사회적 불평등을 깨고 청년을 포함한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시정 철학이다. 청소년 인재육성과를 만들고 꿈꾸는 라운드 테이블을 만든 것도, 청년들의 기를 살려주지 않는 한 가정에도 희망이 없고 지역에도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시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명운을 걸고 있다.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더민주냐? 국민의당이나?’ 당적을 놓고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민생과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의리가 있거나 없나 말들이야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출을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윤장현 시장의 민선6기 2년

미래형 친환경자동차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까지 조성,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 및 한전과 함께하는 에너지밸리 사업에 것처럼 열의를 쏟고, 100개 중소기업을 강대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그동안 어떤 시장이나 간부도 찾아보지 않았던 지역 업체를 직접 돌본 것도, 그런 사명감 때문이었다. ‘누가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은 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영원한 화두(課題)에 틀림 없다.

그가 처음 시장에 당선됐을 때엔 그동안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터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

‘세수대’ 사무총장은 아무나 하나?

다. 특히 중앙 부처에 인맥이 있을 리 없기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첫째 부지런히 움직여 전년도보다 11%나 더 따올 수 있었고, 신규 예산도 300%를 확보해 주위의 우려를 씻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만나서 읍소하고, 행정부처를 방문할 때는 장관실이 아니라 사무관실부터 먼저 찾는 등 온갖 정성을 들인 결과였다.

어느덧 그가 시장이 된 지 2년이 다 돼 간다. 민선6기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 시점에서, 그는 할 만큼 했다는 평을 듣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10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 받은 적이 없어.” 시민시장으로서 그의 감정은 깨끗한 이미지도 그대로 잘 유지해 온 것 같다.

그럼에도 그와 더불어 민선 6기 광주시정에 대한 평가는 유달리 박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뒤지다꺼리만 하다 보니 빛이 나지 않는 것이다. 얼크린 것을 풀어서 가닥을 잡고, 앞선 전임이 무리하게 저질러 놓아 뼈가 드러나는 사업을 반듯이 바로 잡는 데 매달리다 보니, 생색나는 사업이 있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민주 시장’답게 관변단체 등 시정과 관련된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과감히 생략한 데 있다.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그동안에 받던 여러 가지 특혜가 한순간 사라지니, 그들이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을 리 없고 말들을 좋게 해 줄 일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좁히는 것은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아닌 게 아니라 시장 취임 이후 윤 시장은 지지리도 사람 복이 없는 것 같다. 이유야 어쨌든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비서실장이나 정부특보가 몇 번이나 갈리기도 했다.

시장이 된 뒤 ‘하루도 발 뺀고 자 본 적이 없다’는 그가 최근 또다시 ‘사람’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세수대) 사무총장 선임 때문이다. 세수대 사무총장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윤석 현 광주 U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이 적임자로 여겨졌었다.

조영택 전 의원 과연 적절한가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윤 시장은 김 총장을 배척한 것으로 알려진다. 광주시는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율을 통해 김 총장을 내정한 뒤 인가를 받고도 인선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윤 시장과 김 총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의 처신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과 소문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물론 이 정도 큰 대회의 사무총장이려면 적임자가 있을 경우 원수라도 데려다 써야 할 판이라는 점에서, 윤 시장의 포용력을 아쉬워하는 이도 없지 않다.

어찌 됐든 광주시는 이제 후임 사무총장을 골라야 하는데, 처음 정동채 전 의원 등 몇 사람이 거론되더니 최근엔 조영택(65) 전 의원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견 아니다. 조 전

의원은 행정 관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조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도 정전택 후보에게 패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스포츠연맹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우선돼야 하며, 스포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이기 등 국제 스포츠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을 대외 스폰서십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조영택 사무총장으로 이게 가능할까? 해외 홍보를 위한 세계체육기자연맹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필수적이다. 더불어 세계수영연맹 수뇌부와 수시로 대면 또는 전화로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각종 사항을 직접 조율해야 하는 만큼 국제스포츠 행사 관련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이게 조영택 사무총장으로 가능할까?

아무래도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제부터라도 스포츠 마케팅 경험, 개인 간의 인맥을 중시하는 국제 스포츠 연맹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풍부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수영 스타 배대환을 배출한 대한수영연맹과도 긴밀히 협의해 전국적인 인맥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굳이 한물간 전직 국회의원들만 쳐다 볼 필요가 없다. 윤 시장의 결단을 기대한다.

(주필)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8월부터 어른 150원 올라

오는 8월부터 광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임이 인상된다.

광주시는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과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어른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13.6%), 청소년은 750원에서 800원으로 50원(6.7%) 올랐다. 어린이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50원(14.3%) 인상됐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 어른은 버스와 인상 폭과 액수가 같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900원과 500원으로 버스보다 오히려 50원과 100원 더 올랐다. 인상률을 놓고 볼때 청소년은 12.5%, 어린이는 25%에 달한다.

위원회는 애초 청소년은 100원 인상안에서 부담을 고려해 50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은 공사에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 논란의 여지가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1년 7월 이후 5년째 동결해 요금 인상 압박이 적지 않았다”며 “운송료 추가 수입은 174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재정지원금 적자 폭이 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준공영제에 따라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변동 사항

	버스	지하철
성인	1100→1250원	
청소년	750→800원	850→900원
어린이	350→400원	400→500원

※교통카드 기준

2010년 35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32억원으로 늘었다. 도시철도 지원금도 지난해 405억원 등 매년 400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압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요금은 2013년 3월 중형기준으로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됐다. 3년간 동결된 만큼 인상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도시가스는 2013년부터 인상 요구가 있었으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동결해와 언제든 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료는 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13년부터 인상되고 있는데다 2017년까지 오를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연간 900억원이 넘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교통비 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북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북 한은 23일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영국-EU ‘운명의 날’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운명을 가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국민투표가 23일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다. 한국시간으로는 23일 오후 3시에 시작돼 24일 오전 6시에 끝난다.

영국인은 이날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EU를 떠나야 하는가?”라는 질문 아래 적힌 ‘남아야 한다(Remain)’와 ‘떠나야 한다(Leave)’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공식 출구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여론조사 업체가 투표 참여자들에게 따로 물어 예측한 ‘예측

결과’를 투표 마감 직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마감 이후 개표가 곧바로 진행돼 이르면 24일 오전 3시(한국시간 오전 11시)께 윤곽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예측대로 ‘초박빙’이면 개표가 끝나는 오전 7시경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민투표는 1975년 유럽경제공동체(EEC·EU 전신)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이후 41년 만이다. 영국은 1973년 EEC에 가입했다.

투표 결과는 영국의 미래를 가를 뿐만 아니라 EU의 위상과 지형 자체를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1면서 계속

무안공항은 지난해 국내 12만9000명과 국외 18만3000명, 광주공항은 국내 160만5000명의 여객실적을 올렸다. 연평균 증가세에 있지만 동남권의 김해공항(국내 642만4000명 국외 595만8000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이다. 개항 이후 신규 투자자가 없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가 미흡한데다 승객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그 원인이다. 일본, 중국 등의 서남권 수요도 김해공항이 가져갈 정도다. 정부가 2026년 김해 신공항 개항을 위해 도로·철도 등 연계교통망 구축 작업을 병행할

예정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상생을 다짐한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광주(민간)공항과의 통합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균형화 이전, 무안공항에 대한 신규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동안 민·관·학·민 협력을 통해 대대적으로 개편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은 24일 오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 (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잠바와 검은 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차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 꼭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 일반 상업지역/6차선 도로 접/현, 주차장
-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 매매 - 협의
-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 주인직매 H.010-8829-6876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서구 양동 월산사거리 지하층~5층 숙박시설 (원룸가능) 대지 175평 건물 425평 ▶ 감정가 11억 최저가 4억9천만원
-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맞은편 콘도로변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5평 ▶ 최저 거래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급매] 하남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투자수익 프랜차이즈 추천 ▶ 거래가 18억원

병원, 사옥, 상가, 대지, 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정가 1억2천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9평 토지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담양읍 삼만리 전원주택마을입구 도로접 인야. 위치좋은 토지2730평 전원주택 개발추천 ▶ 최저가 4억6천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담312평 마을입구 도로접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거래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서양새마을금고 공고 제2016-02-02호

공사입찰취소공고

1. 입찰취소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양새마을금고 양림지점 및 복지관 신축공사 (전기 및 통신)

나.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73 (양림동)의 1필지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계약체결 시 별도 협의)

라. 공사개요 : 지상5층, 연면적 560.92㎡,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공사내용 : 전기공사(전력 간선설비, 전동설비, 전열설비, 냉난방설비) 및 통신공사(구내통신 선로설비, TV설비, 방송설비)

바. 수요(주관)기관 : 서양새마을금고

사. 추정가격 : ₩175,2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격)

전기: ₩137,258,000원, 통신: ₩37,961,000원

우리금고에서 공고(공고번호 : 서양 제2016-02호)한 입찰공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하게 되어 본 취소공고를 시행합니다. 본 취소공고문의 세부사항은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게시판(http://cafe.daum.net/seoyang)의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 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입찰 취소공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양새마을금고 (☎062-671-5000 담당 최재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3일

서양새마을금고